

북한의 자주 개념사 연구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소)

1. 문제 제기: 북한의 지배 담론으로서 자주

북한은 역사적으로나 동시대적으로 자주라는 개념이 가장 강력한 정치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

전후 신생 독립국이나 독재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자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더욱 현저

- 남한의 경우도 박정희, 노무현 현상이 보여주었듯이 자주 담론의 호소력을 무시할 수 없으나 성장, 민주, 정의, 복지 등 여타 가치 중의 하나에 불과

주체사상의 정립 이후 자주라는 이념 또는 가치는 북한 체제 정당성의 원천으로서 북한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

더욱이 북한에서 자주는 단순히 명분이나 이데올로기일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대내외 노선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강력한 요인

자주성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과 자주노선 불패 신화를 거쳐 자주성의 담보로서 핵무기와 인공위성이 물신화되는 지경에까지 도달

북한의 극단적 자주 개념은 북한의 전략적, 정책적 선택지를 제약했으며 극심한 경제난으로 대외원조에 의존하는 비자주적 국가로 전락

북한식 자주 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변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오늘날 북한의 행태를 해석해 내고 북한이 자주의 동굴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2. 한국의 전통적 자주 개념과 자주독립 개념의 전파

한국은 중국 대륙의 대국들에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 특성상 역사적으로 대외적 자주성에 민감했던 것이 사실

동아시아의 전통적 천하질서 속에서의 자주는 한 국가로서의 절대적 자율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宗廟社稷을 보존할 수 있는 자주, 정교와 내치의 자주라로 이해

- 屬邦自主 vs 獨立自主

조공책봉이라는 규범과 제도로 인해 국가간 관계는 어디까지나 군신이나 친인척관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자주 개념은 주권적 맥락에서의 자주와는 완전히 상이

한국의 전통적 자주 개념은 대국에 편승하여 안녕을 도모하는 사대 개념과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공존 가능

- 상하의 위계구조를 예라는 가치로 이해하는 천하질서 속에서 사대는 기본적으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

사대가 대국에 의존하려는 병폐라는 부정적 어의를 띠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 서방으로부터 주권, 독립 사상이 전파되면서부터

- 조선이 근대국제질서에 편입되면서 한국외교사에서 처음으로 한중관계가 아니라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자주를 사고

1894년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을 계기로 만국공법 질서 하에서 온전한 자주는 속방자주로는 안되고 독립자주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

주권의 상실과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자주독립은 절대절명의 정치적 가치로 고양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남북한에서 공히 강력한 민족주의로 고착

해방에 이은 냉전과 분단 이후 남북한은 정통성 경쟁을 하면서 자주성을 둘러싼 선명성을 다투기도 했으나 궁극적으로 이질적 자주 개념이 정착

3. 북한의 자주 개념 형성과 변용

(1) 북한 건국 초기의 자주 개념

북한 건국 초기의 자주 개념은 어디까지나 자주독립, 말하자면 대외적 자주권이라는 주권의 맥락에서 사용

- 거의 대부분의 문헌에서 자주 개념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자주독립'이나 민족의 자유라는 형태로 등장
- 후일 주체사상에서 애용하는 '자주성'보다는 '자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

자주독립에 대한 강조는 2차 대전 종전 직후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건국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가 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사정과 관계

- "남북의 정치정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단히 말하면 하나는 자유와 민주와 완전독립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학살과 반동과 예속의 길입니다. 하나는 부강과 발전과

부흥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쇠퇴와 멸망과 노예의 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강한 조국 건설을 위하여,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김일성, “8.14 해방 2주년 평양시 기념대회에서 한 보고,”(1947. 8. 14)

후일 주체사상에서 강조하는 민족의 자주성보다는 민족자결권이 강조되고 있으며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민족문제의 해결을 제시

- “레닌-스탈린적 민족정책의 실현과정은 부르조아 민족주의 방법이나 ‘민족문화가치’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칙에 의한 민족자결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만 민족적 압박을 청산할 수 있으며 민족들 간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유성훈, “민족문제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학설,” 『근로자』 제 9호(31), 1949.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강조의 이면에는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가 그 만큼 절실했다는 사정이 작용

- “당중앙위원회는 북조선 인민들이 해방후 3년 동안에 민족경제를 부흥 발전시키며 민족문화를 재생 발전시킴에 있어서 쟁취한 성과는 오직 위대한 소련정부와 소련군대가 조선인민에게 준 진정한 원조의 결과라고 인정한다.” 「북조선 민주건설의 성과와 그에 있어서의 위대한 소련의 원조에 대하여」(당중앙위원회 제4차회의 결정서, 1948. 12. 10) 『결정집』(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1)

- “위대한 소련의 정책은 민족자결을 준수하는 정책이며 타민족의 독립과 자유와 동등권을 존중하는 정책이며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 위대한 소련은 우리조국을 일제 통치로부터 해방시킨 후 우리 조선 인민에게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항상 진정한 원조를 주었습니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의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방문 사업경과보고,” 『근로자』 제8호(30), 1949. * 김일성 저작집 누락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북한체제 강화와 소위 조국해방전쟁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대국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주장할 여력은 부재

- “조선인민은 오늘 우리 조국에 조성된 복잡침예화한 국제, 국내정세 속에서 오직 위대한 소련인민과의 친선을 강화하며 그의 원조와 지지를 받는 조건하에서만 미국과 같은 강대한 외래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우리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유정하, “조쏘친선의 정치적 의의,” 『인민』 10월호, 1949.

- “위대한 소련군대는 우리조국을 근반세기 만에 걸친 일본제국주의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인민에게 자기 조국을 자기들의 지망대로 재건하며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지어주었으

며..” 내각수상 김일성, “조소량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1주년에 제하여,” 『인민』 4월호, 1950.

한국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과정에서도 소련과 중국의 지원과 원조가 절박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

- “만일 우리가 협애한 민족주의적 껍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친선적인 나라 인민들과의 연계를 끊어 버리고 이 나라들의 지지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야수적인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병탄되고 말았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김일성,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조선 인민의 투쟁,” 김일성(1952. 4. 25) * 『김일성 저작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에서는 해당 내용 누락 / 『인민』 (7월호, 1954)에서 인용

- “위대한 소련은 물질-경제적으로 강대하고 부강할 뿐만 아니라 정치-도덕적으로 견고하고 고상하다. 문자 그대로 위대한 소련은 인류의 락원이며 인류의 광명이다.” 권두언, 『인민』 11월호, 1954.

심지어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을 김일성보다 훨씬 높게 추앙하며 따르는 개인숭배양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후일 김일성 우상화로 벤치 마킹

- “「우리 나라의 소박한 사람들은 스탈린에게 대하여 흐르는 시내와 같이 맑고 맑은 노래를 지었으니 스탈린은 바다보다도 더 깊고 산보다도 더 높으며 그의 제자들은 백두산 봉오리의 눈송이 보다도 더 많다고 불렀다」 (김일성) .. 스탈린의 유훈에 충실한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와 조선 로동당이 가르치는 길에는 항상 영광과 승리가 있음을 잘 알면서 .. ” 권두언 “스탈린의 사상은 평화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기치,” 『인민』 3월호, 1955.

한국전쟁 후에도 상당기간 이어진 적나라한 소련과 스탈린 추종은 설사 대내외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고는 해도 주체사상의 1930년 기원설의 허구성을 반증

(2) 주체사상 맥락에서의 자주

주체사상의 극단적 자주 개념이 태동하게 된 배경은 1차적으로 노동당 내의 권력투쟁, 노선투쟁이라는 국내정치적 맥락

-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무정, 허가이, 박헌영 등 김일성의 정적들이 제거되었으며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최창익, 박창욱 등 연안파와 소련파의 잔존 세력들마저 숙청

- 특히, 전후 복구와 건설 노선을 둘러싼 사회주의 발전전략 논쟁에서 연안파와 소련파는 중공업 우선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 발전이라는 김일성의 정책에 반대

- “전쟁 시기에 군대 내에서의 정치사업 방법 문제를 가지고 허가이, 김재욱, 박일우가 쓸데없이 서로 싸운 일이 있습니다. 소련에서 나온 사람들은 소련식으로, 중국

에서 나온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면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1955.12.28)

김일성은 권력투쟁 과정에서 외세에 의존하는 종파들에 대한 반종파, 주체라는 명분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

- “사상사업에서 주체가 똑똑히 서있지 않기 때문에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의 과오를 범하게 되며 우리 혁명사업에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역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인민의 투쟁 역사를 연구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그 것을 널리 선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혁명투쟁에 있어서나 건설사업에 있어서나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그 것을 우리나라의 구체적 조건, 우리의 민족적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이상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1955.12.28)

한국전쟁시 소련과 중국에의 종속적 지위, 작전권 상실의 뼈아픈 경험도 주체사상 태동의 배경으로 작용

- 한국전쟁시 소련은 북한과 중국의 배후에서 작전을 일일이 지시, 간섭하며 전쟁을 총지휘하였으나 정작 소련의 이익과 관련한 사안에서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

- 중국은 지원군의 참전 이후 팽덕회가 조중연합사령부 사령관을 맡으며 작전을 지휘하였고 북한은 김웅이 부사령관, 박일우가 부정치위원을 맡아 팽덕회의 지시를 받았고 북한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김일성의 지위는 명목화

1955년 문건의 위작 및 주체사상 효시 논란

- 주체사상의 기념비적인 연설로 평가되는 1955년 문건의 진위와 실제 연설 계기(북한은 당선전선동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로 기록, 1960년 출판 김일성 선집)에 대한 논란

- 중소분쟁이 표면화되기 이전에, 더욱이 소련 20차 당대회 이전에 주체와 자주를 거론했을 리 없다는 것이 위작론의 근거이지만(와다 하루키) 김일성이 동 연설에서 아직 ‘자주’를 주창하지도 않았고 사상사업에서 주체 확립만 강조(Myers, 2006)

- 김일성의 연설 직전 날 문학전선에 대한 언급 등을 볼 때 북한이 실제로는 당중앙위 확대상무위원회에서 한 연설을 굳이 바꿀 이유가 있는지

- 중요한 것은 동 문건의 조작 여부가 아니라 원래 그 정도로 비중 있는 문건은 아니었는데 후일 실제 이상의 의미 부여를 했다는 사실

- 1955년 연설 이후 이를 확산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부재 / 김일성 자신도 간헐적으로만 언급 / 1959년 출판된 『정치용어사전』에도 ‘주체’ 항목 누락

* 영문 번역의 문제

- 1955년 문건의 최초의 영문번역은 1965년에 나왔으며 처음부터 Juche로 표기, 반면 1965년 소비에트 철학사전 번역에서는 '주체'를 subject의 번역어로 선택
- 1955년 맥락에서는 사실상 subject의 의미이나 후일 보다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Juche라는 고유명사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 가능

* 주체사상의 기원 문제

- 김정일은 김일성이 일찍이 1930년 6월 카툰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보고를 통해 주체사상을 창시했다고 주장
- 주체사상의 기원을 1931년 중국공산당 가입이나 1940년 소련으로 이동하기 전인 1930년에서 잡은 것은 마오주의나 스탈린주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고려
- 김일성 자신은 당시의 보고가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이후 부단히 발전 풍부화되어 오늘과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회고하면서 1955년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특별히 강조하였다고 회고

1955년 12월 연설 이전에도 김일성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과 조선의 문화유산에 대한 강조가 간헐적으로 발견

- 1940년대부터 선전선동에서 조선역사와 민족문화를 지속적으로 강조
- 1951.11.1 당중앙위 제4차 전원회의 보고, 1952.12.15 당중앙위 제5차 전원회의 보고 등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우리 실정에 맞는 적용을 강조
- 특히, 1955년 4월 1일 당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와 연설에서 종파주의를 비판하면서 맑스-레닌주의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것을 주장

1956년 이후로 북한 공식문건들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과 혁명전통을 강조하는 논조가 현저해 지기는 하지만 프 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강조도 여전

- “민족적 특성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으로부터 물러서는 것이나 또한 민족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 사회주의의 위업에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경축 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 회의들에 참가한 우리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사업에 관하여,”(1957.12.5) 『근로자』 제12호(145), 1957.

1950년대까지는 소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해 연안파, 소련파 세력들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도 소련 공산당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으며 심지어 김일성 우상화도 일부 시인

-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서 <개인 숭배와 그의 후과를 퇴치할 데 관하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 본 전원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도 약간한 정도의 개인숭배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한다. 이는 주로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한 개인의 역할과 공로를 지나치게 찬양하는데서 표현되었다 .. 그러나 당의 지도자들에 대한 대중의 신임과 존경을 개인숭배와 혼동함으로써 당의 영도를 훼손하려 하며 당 지도자들의 역할을 부인하며 당의 중앙집권제를 무시하며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을 조성하며 당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옳지 않은 경향에 대하여 당은 경계하여야 한다.” 「형제적 제 국가를 방문한 정부 대표단의 사업 총화와 우리 당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들에 관하여」 (전원회의 결정, 1956.8.30~31) 『결정집』 (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6)

중소 양국의 북한 내정에 대한 간섭과 중소분쟁의 격화가 주체사상과 자주노선 채택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

- 1956년 8월 당전원회의에서 최창익, 박창욱 등을 축출하였으나 평양으로 파견된 러시아 부수상 미코얀, 중국 국방부장 팡덕회의 압력으로 9월 전원회의에서 이를 번복하는 수모

- 중소분쟁은 1957년부터 내연하기 시작해 1960년 중국의 수정주의 비판으로 전면화되었으며 이는 북한에게 자주노선의 계기를 제공

- 소련 한인 출신으로 북한 외교 고문을 지낸 박덕환의 증언에 따르면 1955년 제기된 이후 확산되지 않던 주체에 대한 테제가 1959년 후반 이후부터 제한된 당국가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당문건과 강연에서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당비서 김도만과 당중앙위 부위원장 중심적 역할 수행(From the Journal of N. Ye. Torbenkov, Record of a Conversation with DPRK MFA Counselor Park Deok-hwan, 1960.6.1)

- 체코 대사 Kohousek이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1960년 말부터 북한에서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해졌으며 주체 원칙의 잘못된 적용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소련의 지원을 무시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Report on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DPRK, 1961.4.18)

- 주체에 대한 후속 장문 논설은 1962.12.19 노동신문 사설(“1952년 당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의 역사적 의의”) / 1965년 김일성의 인도네시아 연설에서 주체사상 정식화 / 1966.8.12 노동신문 논설 “자주성을 옹호하자”에서 자주노선 전면화

주체사상의 이르러 북한의 자주 개념은 극단적 자율성, 특히 대국으로부터의 자율성, 독자성, 자위·자립적 맥락에서의 자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

- “자주성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매개 당의 신성한 권리이며 매개 당은 또한 다른 형제당들의 자주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 “우리 당도 대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을 받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국주의자들은 응당한 반격을 받았습시다. 당시 우리는 참기 어려웠지만 혁명의 이익과 단결의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온갖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대국주의를 경계하여야 합니다.”

- “우리가 거둔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자주노선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주노선으로 하여 우리 당은 대내외활동에서 노선상 좌우경의 편향을 범하지 않았으며 원칙적 과오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수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입니다.”
-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노선입니다.”
- “조선민족과 조선의 삼천리강산을 떠나서 조선혁명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며 조선의 역사와 전통, 조선사람의 생활 감정과 풍습을 고려하지 않고는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을 반대하고 민족주체 의식을 높이며 외세의존사상을 반대하고 자주자립의 사상을 선전하며 민족허무주의 사상을 반대하고 조선인민의 애국적 민족전통을 널리 선전하여야 합니다.” * 이상 김일성,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제2차 조선노동당 당대표자회 연설(1966.10.5)

전조선혁명에 대한 김일성의 집착과 남한 중간층과 지식층에 대한 포섭 의지도 주체사상, 자주노선 주창의 배경

- 제2차 조국해방전쟁이 불가능하다면 3대혁명 역량 강화, 특히 남조선혁명 역량의 강화를 위한 남한내 지지세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주체, 자주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
- 김일성은 동독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자주 주창의 이유를 조선혁명과 통일을 위해 서라고 설명 “우리가 통일을 하고자 한다면 남한의 교수, 인텔리들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 자주(self-reliance)는 남조선의 지식인들과 인민들을 계몽시키는데 중요합니다 .. 조선혁명은 가장 강한 적, 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혁명역량과의 연대를 원합니다.”(Memorandum On the Visit of the Party and Government Delegation of the GDP, led by Comrade Prof. Dr. Kurt Hager, with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KWP and Prime Minister of the DPRK, Comrade Kim Il Sung, 1968.4.23)

북한의 자주 개념은 통일 이데올로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자주는 통일이 지상과제로 제기되는 배경이자 동시에 통일 방법론

- 김일성은 한국전쟁 이전에는 서울땅을 한번도 밟아보지 못한 인물이지만 조선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길 희구
- 단지 북한지역 뿐만 아니라 전조선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김일성은 살아생전 단 한번도 전조선혁명, 말하자면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는 것이 확실

-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는 이른바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조국해방전쟁을 통한 통일을 추구
- 전쟁을 통한 통일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남조선혁명론과 3대혁명역량론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
-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통일은 “단순한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미제에 의해 빼앗긴 남녘땅과 남조선 인민들을 예속에서 해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혁명 문제”로서 “전국적 관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해방혁명”(허중호, 1975)이라는 것
- 북한에서 자주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이자 통일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원칙으로 설명
- 자주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남측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북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
- 북한에서 자주 개념이 본격적으로 강조된 것은 건국 초기가 아니라 1960년대 들어 북한이 3대혁명역량론을 체계화하고 통일 공세를 펼치면서부터

북한의 자주 개념에는 주체사상의 혁명 개념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이 남한의 주로 반외세 맥락에서의 자주 개념과 차별적

-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인 만큼 자주는 기본적으로 혁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문제
- 7.4 공동성명에 반영된 자주의 2가지 속성: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independently, self-determined), 민족적 대단결에 기초하여(solidarity) -> 혁명 개념의 투영?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요구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허정호, 216)
- 김일성이 이후락과의 회담에서 민족적 대단결(solidarity) 원칙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결국 남조선혁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 가능(Conversation between Kim Il Sung and Lee Hu-rak, 1972.5.4)
- 남조선혁명론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가능성을 설정하기는 하지만 전쟁에 의한 비평화적 통일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미국의 힘이 약화되어 남조선혁명이 일어나고 북의 지원을 요구할 때는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도 가능한 것으로 가정(허중호, 267-270)
- 결국 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자주성을 고취한다는 의미

1970년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거치면서 주체사상은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노선에 그치지 않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보편적 사상이론으로 재편

-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는 전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과제로 내세웠으며 1972년 헌법개정을 통해 유일지배체제 확립
-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주도하면서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확립

북한의 자주 개념은 '자주성'이라는 메타이론적 개념으로 격상되면서 인간과 사물의 속성으로 정의됨

-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혔습니다.”

-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 간의 속성입니다. 자주성으로 하여 사람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냅니다.”

- “인류사회의 발전역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원리를 새롭게 밝히셨습니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고 조절통제합니다.”

-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사상, 정치, 경제, 국방 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칙입니다.”

- “사람중심의 세계관, 사회역사관을 밝힌 주체사상은 세계관 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맑스주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 확립되었다면 주체사상에 의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 완성되었습니다.” * 이상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

(3) 북핵문제와 자주 담론의 물신화

사회주의권 붕괴와 김일성 사망 이후 소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은 더욱 극단적인 자주노선을 채택

-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이은 한소수교(1990), 한중수교(1992)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면서 더욱 자력갱생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 환경을 조성

- 1990년대 중반 북한에 닥친 극심한 자연재해도 영향

1990년대 절대절명의 체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북한의 자주 개념은 단지 정체성과 명분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내재

-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역사적 승리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과 국가사회제도의 공고성,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과 불요불굴의 투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으며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고 세계전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미제에게 참패를 안긴 전승업적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영웅의 나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웅적 군대, 영웅적 인민으로 세계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 “지난 세기 90년대에 이르러 정세는 급변하였으며 우리 조국과 혁명은 역사에 유례없는 엄혹한 난관과 시련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단독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들과 싸워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를 수호한 것은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 “우리 공화국은 ..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치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입니다.” * 이상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사회주의국가이다,” 노동신문 및 민주조선 게재 담화(2008.9.5)

북한의 자기확신과 자신감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김정일의 선군노선과 강성대국론이 제기되는 배경

- “국력에서 제일국력은 군사력입니다 .. 우리의 주체적인 국방공업은 위력한 현대적 무기와 군사장비, 군사수단들을 다 만들어내게 되었으며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이 확립되어 전민 무장화와 전국 요새화가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선군정치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고립압살책동을 제압분쇄하고 필승불패의 군사적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으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 선군조선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 이상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사회주의국가이다,” 노동신문 및 민주조선 게재 담화(2008.9.5)

특히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의 개발 성공은 북한체제의 자신감을 결정적으로 고양시켰으며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주권의 담보로서 핵과 인공위성이 물신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음

- “우리의 핵무력은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담보로 됩니다.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근 70년간 세계적 규모의 냉전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여러 지역들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도 많이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국들만은 군사적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3월 전원회의 보고(2013.3.31)

4. 김정은 시대의 자주 개념 변화 가능성

김정은 정권은 초기 일부 비핵화 조치를 포함한 2.29 합의를 도출하는 전향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는 등 과거로 회귀

김정은 체제의 브랜드로 내세운 소위 병진노선도 공공연히 핵무력을 공식화하는 등 기존의 선군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 내내 미국과 중국 등 대국들을 상대로 하는 자주 캠페인을 전개

-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저히 구현하여 오신 경제와 국방 병진노선의 계승이며 심화발전입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3월 전원회의 보고(2013.3.31)

김정은 정권의 핵과 인공위성 고수 정책은 그것이 북한의 자주성을 대표하는 실체이며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인식에 기반

-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 없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합니다.” 김정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 연설.”(2012. 4. 15)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매국노로 지목한 것은 과거 김일성 시대의 박헌영 제거 과정과 놀랍도록 유사하며 북한에서 자주 이데올로기가 권력 장악에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것을 시사

- “장성택은 비열한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후 외부세계에 《개혁가》로 인식된 제놈의 추악한 몰골을 이용하여 짧은 기간에 《신정권》이 외국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망상하였다.” <공화국 형법 제60조 따라 장성택 사형 -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조선중앙통신, 2013. 12. 13)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 이후에도 이러한 극단적 자주 개념을 고수할지 아니면 보다 유연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자폐적 자주 개념의 전환이 없는 한 진정한 개혁도 북한의 미래도 보장 불가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회고록』
김정일, 『김정일 저작집』
김정은, 「김정은 연설문」
허종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노동신문」
『결정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46-1956.
『인민』 1949-19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기관지
『근로자』 1947-1957, 조선로동당 기관지
『정치사전』
『정치용어사전』
『해방후 10년 일지』 1945-1955, 조선중앙통신사
『北韓研究資料集』 第1輯,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9
『北韓研究資料集』 第2輯,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4
Woodro Wilson Center, NKIDP Document Reader Series

2. 연구문헌

- Yong-Ho Choe, "Reinterpreting Traditional History in North Korea," *Journal of Asian Studies*, 40(3), 1981.
최용호, "북한 역사학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사 시민강좌 20(서울: 일조각, 1997)
Brian Myers, "The Watershed That Wasn't: Re-evaluation Kim Il Sung's Juche Speech of 1955," *Acta Koreana*, 9(11), 2006.
Han S Park, "Perceptions of Self and Others: Implications for Policy Choices," *Pacific Affairs*, 73(4), Winter 2000-2001.
이종석, "주체사상의 내용과 역사," 제2부 제1장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이미경, "북한의 대외관계와 주체사상의 형성: 한국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2), 2001.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통일연구원 연구총서(서울: 통일연구원, 2001)할 부각
정성장, "주체사상의 기원과 형성 및 발전 과정,"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1(2), 2000)